경제 위기 이후 한 · 일 건설업계의 대응

- 매출 부진과 수익성 악화 '同病相憐', 일본은 늑장 구조조정으로 장기 침체 자초 -

IMF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공사 물량의 감소, 업체 수 증가, 그리고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과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건설업체들이 처해 있는 장기 침체 국면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르지만 매출 부진, 수익성 악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양국의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

닮은 꼴 … 매출 부진과 수익성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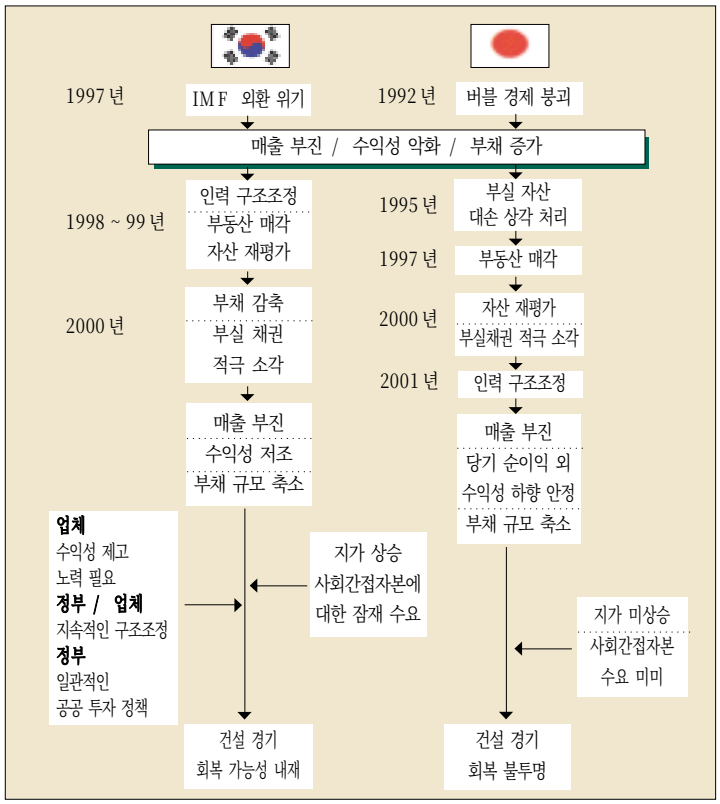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매출 부진의 주요 원인은 전체 건설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즉, 건설 경기의 하락으로 민간 건설 수요가 위축되었으며, 대규모 국책 사업들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정부의 공공 투자 또한 감소하였던 것이다.

반면, 일본은 버블 경제 시기에 과잉 공급되었던 민간 건설 부문의 수요가 버블 붕괴 이후 위축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인 공공 투자 사업으로 시장 규모는 크게 축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공 토목 공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진입하는 신규 업체들에 의해 경쟁이 격화됨으로써 매출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익성 하락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 위기 이후 금리의 급상승으로 인한 금융 비용의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차입금을 대서라도 매출을 늘리려는 외형 중심의 경영 전략을 전개함으로써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었다. 이것이 경영을 압박하였다.

반면, 일본은 버블 경제 시기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기계적으로 구입하였고, 그것만으로도 이익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거품이 빠지면서 더 이상의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한 · 일 양국의 건설산업 구조조정 과정 비교



일본, 신속한 구조조정에 실패

이와 같은 위기에 대처하는 한 · 일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제일 먼저 채택한 방법은 인력 구조조정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구조조정이 즉 미국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단행하고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업체들은 경영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1998 년 초부터 시작되어 1999 년까지 진행되었다. 2000 년에 들어서는 장기 공사 미수금, 투자 자산 감액 손실, 보증 채무 등의 부실 채권, 불량 자산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부채 비율 200%, 이자 보상 배율 1배 등의 기업 구조조정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업체들의 구조조정을 견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버블이 붕

괴한 뒤에도 신속한 대응책 마련에 실패하였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시작한 시점도 상당히 지연되었다. 구조조정의 강도 또한 미온적이었다. 위기를 맞이한 지 3년이 지난 1995년에도 부실자산을 대손 상각으로만 처리하였던 것이다.

또한, 1997년까지 '토지 불패'의 신화를 맹신하다가 대형 금융 기관이 도산이 발생하고 난 후에야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하였다.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최후의 구조조정 방법이 인력 구조조정이다. 최근들어서는 퇴직 적립금을 특별 손실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지연된 원인은 일본 특유의 종신 고용제 때문이었다.

이는 기업이 탄력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며, 일본의 건설업체들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야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익성 제고가 시급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 일본은 부채 규모를 축소시켰으며, 특별 손실의 반영으로 적자를 나타낸 당기 순이익률을 제외한 영업 이익률과 경상 이익률은 다소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버블 경제가 붕괴한 이후 하락한 지가가 여전히 상승되지 않고 있어 위축된 민간 건설 경기의 회복이 불투명해 보인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오는 2010년이 되면 일본 건설 투자의 규모가 현재의 50% 수준으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본 건설업계의 고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신속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한 우리나라는 업계 내에서 부실기업들의 대규모 퇴출이 이루어졌고 부채 규모의 대폭 감축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수익성은 여전히 저조하여 수익성의 제고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IMF 외환 위기 이후 급락했던 지가가 최근들어 지표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는 민간 건설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본에 비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많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향후 공공 토목 부문의 잠재 수요도 대기 중이므로 향후 건설 경기에 대하여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관적 공공 투자 정책 절실해

최근 민간 건설 수요의 극심한 침체로 인해 건설 경기 회복의 유일한 방안으로서 공공 투자의 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같은 무분별한 일방적 주입식의 공공 투자 정책이 아닌 치밀한 계획에 의해 수행되는 효율적이고 일관된 공공 투자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 있는 경영 전략과 함께 수익성 제고 노력이 전제된다면, 우리 건설업계는 일본의 건설업계와는 달리 단기간 내에 침체의 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선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sunny@cerik.re.kr

인터넷 여행 : www.conslove.co.kr

한국건설신문

이번 호에는 건설 종합 언론으로서 건설인들의 이해와 요구를 지면을 통해 담아왔던 한국건설신문이 선보인 새로운 개념의 인터넷 신문(www.conslove.co.kr)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건설신문의 사이트는 그 동안 신문 홈페이지가 보여준 정형화된 틀을 깨고 방문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인터넷신문을 지향하고 있다. 한국건설신문의 사이트는 건설을 사랑하는 건설인들이라면 누구나 직접 기사를 올릴 수 있는 쌍방향 시스템이다, 따라서 누구나 기자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자유롭게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의 눈과 귀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건설 매니아들의 손으로 직접 홈페이지를 가꾸어가는 한국건설신문 사이트는 그 동안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담아내지 못했던 다양한 뉴스를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건설인들에 의해 한국 건설산업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건설신문을 통해 전달된 건설 정책을 비롯한 각 협회 · 업계의 소식, 자재 · 장비, 기획 기사와 특집 등을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건설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수주 정보인 입찰 · 낙찰 정보를 매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강했다. 또한, 한국건설신문 사이트에 접속하면 건설인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마당 속에서 구인 ·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고 각 건설 현장에서 몸으로 체험된 이야기를 펼칠 수 있어 200만 건설인들의 진정한 쉼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직접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광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4급기술원